

치 사

동국대학교 제38대 이사장 일면스님과 제18대 총장 보광스님의 취임을 축하합니다. 더불어 현시대가 바라는 교육의 의미를 올곧게 실현하고, 학교의 미래를 위해 헌신의 마음으로 서원하시는 두 스님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드립니다.

동국대학교는 100여년의 역사이지만 천년의 지혜가 담긴 선대(先代)의 소중한 뜻이 살아있는 학교입니다. 전국의 천년고찰과 선각의 스님들께서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위해 삼보정재는 물론, 사부대중의 마음으로 설립한 자주적이고 민족의 희망을 실천하는 교육기관이었기 때문입니다.

선대께서 교육구국의 숭고함을 펼쳤던 뜻은 바로 오늘을 있게 한 백년대계의 첫걸음이었으며, 선사들의 정신이 깃든 것 또한 여느 사학도 비할 바 없는 엄청난 자산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제 그 역사를 발판으로 21세기 새로운 백년대계를 그려가는 지금은 수많은 동국인과 불자, 그리고 종도의 자부심과 긍지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동국대학교는 불교계의 어떤 기관보다 거대한 재정규모와 인적 구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영과 재정, 교육여건과 지원체제에 어려움이 함께하기도 하지만, 명문사학의 선도적인 역할에 여념이 없어야 한다는 책무 또한 각별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의미와 연관하여 이사장스님과 총장스님 모두 평소의 원력과 공심으로 학교와 불교 발전에 큰 뜻을 펼쳐오신 것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종단에 봉사한 주요소임과 교육자로서의 업적, 그리고 사회공익사업에도 두루하신 경험과 역량으로 학교구성원과 동국인 모두의 자긍심을 이끌어

주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종단과 학교의 관계를 잘 이해하고, 학교를 위해 종단의 역할을 찾아내고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종립학교로서의 정체성과 위상을 어느 때 보다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구성원의 모두의 희망과 바람, 그리고 학교의 발전과 미래라는 여망 앞에서 평소의 일념대로 차근차근 실천하시길 바라며, 인재를 배출하고 우수한 연구결실을 통해 사회와 국민의 유익함은 물론 불교의 위상을 한껏 드높이기를 바랍니다.

구성원의 화합과 신뢰를 통해 단단한 학교발전의 토대를 이루고 많은 분들이 바라듯 기대에 부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종단 또한 한 마음 한 뜻으로 학교의 소식을 경청할 것이며, 사찰과 불자님의 관심과 지원을 이끌어 내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학교와 동국인의 미래를 위해 종단은 항상 함께 할 것입니다.

그동안 종립학교라는 인연에 따라 전국의 사찰과 불자님의 소중한 기부와 지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학교의 발전과 미래에 언제나처럼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동국대의 발전은 곧 종단의 자랑이며, 학교의 미래는 곧 모두의 미래이기 때문입니다.

시대마다의 어려운 여건에서도 명문사학의 원력을 실천해 오신 역대 이사장님과 총장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일생의 정진으로 일구신 그간의 공덕과 앞으로의 헌신으로써 동국인은 물론 종도의 기대와 관심에 보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불기2559년 6월 11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